

배산임수 복층 목조건물 “자연을 담았죠”

■ 담양 공산지구 ‘맞춤형 전원마을’

조용주·고현주씨 양육집

광주 인근 시·군에서 전원주택지로 각광받는 곳이 담양이다. ‘접근성’과 ‘자연 풍광’은 물론 사립 명문고로 발돋움한 창평고 등 ‘교육여건’까지 3박자를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담양은 전남지역 시·군 가운데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선두주자다. 맞춤형 전원마을은 농림부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민 입주자들이 주택을 짓는 단지형 전원마을을 말한다. 지자체가 입지를 선택해 입주자 모집에 나서면 입주자 스스로 협의회를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담양에서는 4곳이 사업을 진행중이며 수북면 공산리의 ‘공산지구’만 일부 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다. 공산지구의 경우 총 20가구가 구성돼 있으며 현재 5가구가 주택 건축을 마쳤으며 이 가운데 4가구가 상주하고 있다.

지난 12일 밤 단지의 첫 입주자인 조용주(45·광주 동산중 교사)·고현주(42·광주 문흥초등 교사)씨 부부집을 찾았다. 지난해 10월 13일 입주한 조씨 가족은 부부와 창평고에 다니는 딸과 아들이 있다. 2학년인 딸은 학교 기숙사에 있어 가족은 3명만 만날 수 있었다. 멋드러진 양육집 외관에 어울리게 집 내부도 밝은 색 나무가 눈에 띄는 복층 구조의 목조건물이었다. 건물 바닥면적 38평에 2층까지 합하면 연면적 56평으로 평당 건축비는 350만원 정도 들었다. 부지는 216평으로 3년전 토지 매입비와 땅을 고르고 석축을 쌓는 부지 조성비까지 포함하면 건축비를 제외한 비용은 5~6천만원선, 총 2억5~6천만원이 들었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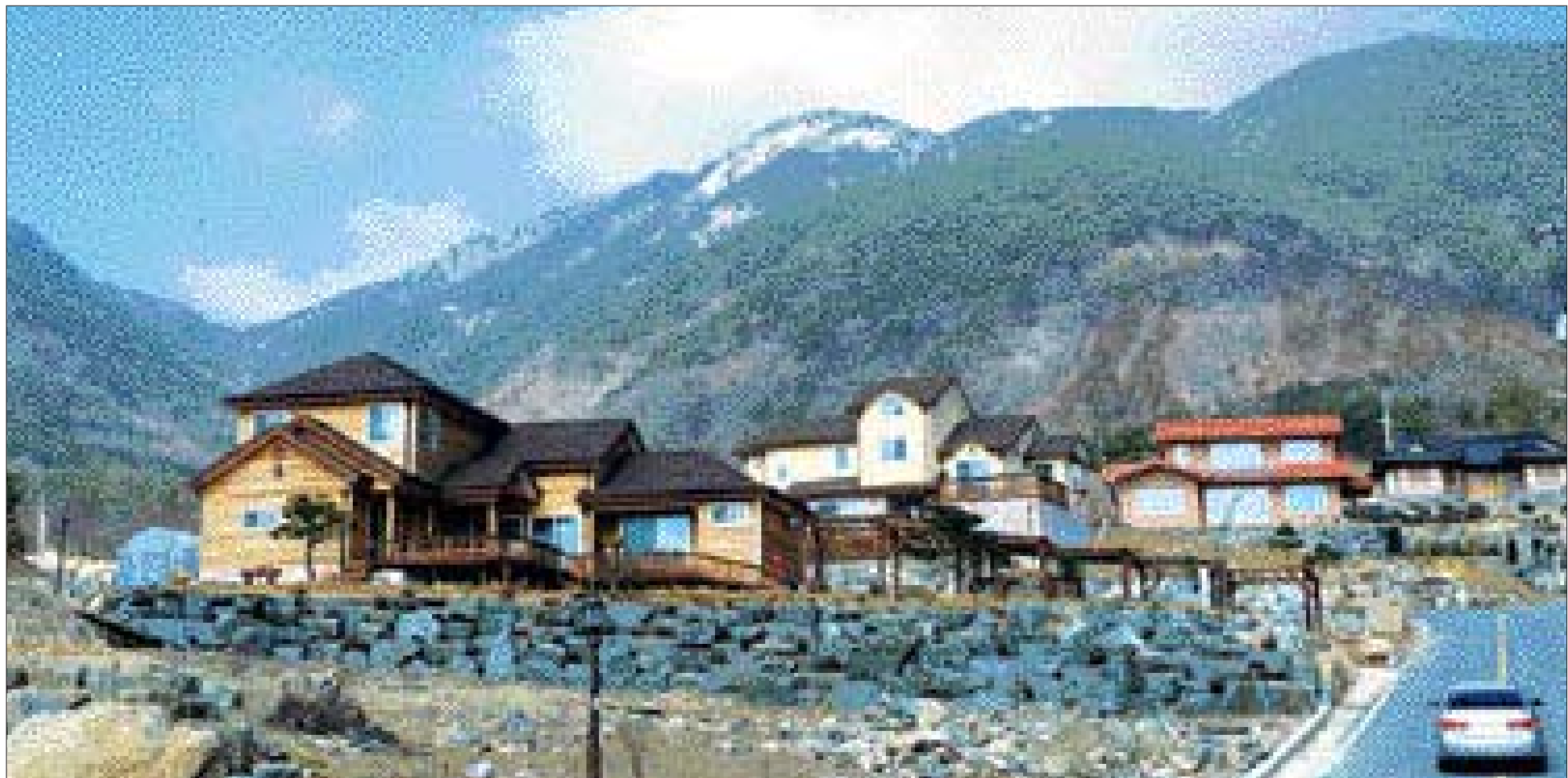
조씨는 “광주의 4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전원생활을 꿈꾸은 조씨부부는 광주에 살면서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는 대신 자연을 택했다. 아파트 평수를 늘려 갈수도 있었지만 광주생활 8년동안 24평에 살면서 차곡차곡 저축해 전원생활의 꿈을 이뤘다.

“만족합니다. 맑은 공기와 물, 빗소리와 새소리 등 자연이 주는 선물은 도회지 생활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조씨가 과감하게 전원생활을 결정하게 된 것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있어서다. 많은 학생을 가르쳐온 교사이자 자식을 둔 부모로서 그는 아이들이 꿈을 잃어가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공부할하는 것이 곧 성공은 아닙니다. 학습이란 ‘배우고 익히는 것’인데 요즘 도회지 아이들은 배우는 것만 반복하는 것 같아요” 조씨는 진짜 교육이란 자연을 통해 배운 것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가 고향인 조씨가 이곳을 택한 이유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택지가 마음에 들어서다. 공산지구는 산을 등지고 쪽재골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 만든 그림같은 저수지가 앞에 놓여 있다. 공산지구 사람들은 이 곳 짝짜기



담양군 수북면 공산리의 쪽재골 전원마을 전경. 일명 공산지구로 불리며 단지형 전원주택으로 조성됐다. 맨 앞집이 조용주·고현주씨 집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접근성·자연풍광·교육여건 등 갖춰
입주자들 음식 나누며 동질감 느껴
자연속에 살다보니 가족에 더 커져

이름을 따 단지이름을 ‘쪽재골 전원마을’이라고 부르고 있다.

조씨는 특히 기온마을에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마을사람들과 융화되기 힘든 점도 있어 맞춤형으로 조성된 단지를 선택했다. 그는 “입주자들의 직업은 각기 다르지만 주말이면 한 집에 모여 음식을 나눠 먹다보면 동호인처럼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면서 단지생활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부인 고씨도 “전원생활을 해보니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도시때보다 훨씬 많다”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애도 커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씨는 그러나 전원생활을 즐기려면 몇가지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당 가꾸기 등 시골생활이 녹록치 않아 부지런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다. 조씨는 지금까지는 1주일에 한번꼴로 광주의 대형마트에 들러 생활용품을 사고 있지만 앞으로는 마당에 마련한 조그만 텃밭에서 자체 해결해 마트에 들르는 횟수를 한달에 한번으로 줄일 계획이다.

올해 연말이면 쪽재골 전원마을은 입주자들로 가득 할 전망이다.

쪽재골 전원마을협의회 대표이자 한옥집을 지어 입주한 전정철씨(담양군의 회 부의장)는 “현재 8가구가 집을 짓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연말까지는 전남의 대표적인 맞춤형 전원마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조용주씨 가족이 전원생활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환하게 웃고 있다.

담양 맞춤형 전원마을 단지 각광

공산·유천·용수·대성지구 4곳

담양에는 수북 공산지구 이외에도 맞춤형 전원마을 단지가 3군데 더 있다.

‘창평 유천지구’는 창평면 유천리 산 9번지 일원에 부지 2만9천 755㎡로 31호가 조성된다. 한옥시범단지로 조성되며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진행중이다. 빠르면 다음달에 도로 등 단지 기반시설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창평면 용수리 일대 7만453㎡에 조성 예정인 ‘창평 용수지구’는 50가구가 거주하게 된다.

농림부에 제출된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서가 통과되면 사업시행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가 시작된다. 입주자들은 모두 모집된 상태로 맞춤형 전원단지중 가장 규모가 크지만 복양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금성 대성지구’는 금성면 대성리에 2만2천870㎡로 계획돼 있다. 유럽풍 전원주택 21호가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에 담양호와 담양리조트가 있어 자연풍광과 입지시설은 타 지역에 비해 좋은 편이지만 광주에서 상대적으로 멀다.

담양군 관계자는 “4개 지구에 58억여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다”며 “사업승인이 되면 입찰공고를 통해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후 6~8개월 후면 입주자들이 집을 지을수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KWANGJURO 3.1 MARATHON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일: 2008. 3. 1(토) 오후 9시
장: 호남대학교학생기숙사 및 호남산악체육관(광주-남평고) 경기장
참가비용: 참가비 10,000원, 보험료 5,000원

주최: 광주일보, 호남대학교, 호남산악체육관
주관: 호남대학교학생기숙사, 호남산악체육관
후원: 광주광역시, 호남대학교, 호남산악체육관, 호남대학교학생기숙사, 호남대학교체육관, 호남대학교학생회, 호남대학교학생자치회, 호남대학교학생복지회, 호남대학교학생문화회, 호남대학교학생체육회, 호남대학교학생체육동맹회, 호남대학교학생체육동맹회, 호남대학교학생체육동맹회, 호남대학교학생체육동맹회

문의: 02-270-8541 (광주일보)